

글로벌 석학 다 모였다... 삼성서초사옥, AI메카로 부상

삼성 AI 포럼 2018, 오늘까지

김기남 사장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

안 르쿤 교수
“자기 지도 학습, AI의 갈 길”

세바스찬 승
“뇌구조 이용한 인공지능경망”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왼쪽). 미국 뉴욕대학교 안 르쿤 교수가 '자기 지도 학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꼽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 확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2일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삼성 AI 포럼 2018'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약 15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AI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함께 대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연구 교류 활동도 진행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은 첫 날 개회사에서 “AI 기술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세계적인 AI 혁신가들을 모시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미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날에는 미국 뉴욕대학교 안 르쿤 교수,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요수아 벤지오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맥길대학교 조엘 피노 교수, 몬트리올대학교 애런 쿠르빌 교수, 카이스트 양은호 교수 등이 참여해 자기 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 최신 인

공지능 기술과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 르쿤 교수와 요수아 벤지오 교수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로 꼽힌다.

첫 강연자로 나선 안 르쿤 교수는 '자기 지도 학습'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사람 수준의 궁극적인 AI를 갖추기 위해 복잡한 실제 세계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향후 도전 과제로 자기 지도 학습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참가하는 요수아 벤지오 교수는 '최적화, 일반화 관점에서 본 SGD 기반 딥러닝 학습'을 주제로 강연했다. 여기엔 AI 학습과 훈련 방법 중 하

나인 SGD가 최적화와 일반화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둘째날에는 언어·추론과 시각·로보틱스·온디바이스 AI의 두 가지 주제로 나뉘, 더블린대학교 베리스미스 교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이아니스 드미리스 교수, 하버드대학교 위구원 교수 등이 발표한다.

뇌 신경공학 권위자인 삼성전자 최고 연구과학자 세바스찬 승 부사장은 '현대적 관점에서의 컴퓨터와 뇌'를 주제로 강연한다. 승 부사장은 신경 회로망 연구와 인공지능 간의 접목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과 함께, 인간의 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지능영상을 이용한 연구 결과도 소개할 예정이다.

MIT 신시아 브리질 교수는 '소셜 로봇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주제로, 현실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소셜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로봇 설계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전달한다.

한편, 이튿날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와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한 'AI 챌린지' 시상식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AI 챌린지는 시상식에 앞서 IT 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AI 해커톤'과 특정 주제 데이터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데이터 챌린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본선 참가자들은 지난 8일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AI를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 선형 연구를 이어가고, 우수 인재 확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중서 '열전 반도체 테크 포럼'... 시장 공략

LG이노텍이 중국 열전 반도체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선다.

LG이노텍은 최신 열전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열전 반도체 테크 포럼'을 오는 10월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포럼을 통해 최신 열전 반도체 기술을 중국 시장에 소개해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여러 기업·기관과 사업 협력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열전반도체는 전기를 공급해 냉각·가열 기능을 구현하고, 온도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 기술이다. 이 기술로 컴프레서나 열선 없이 간편하게 냉각·가열이 가능하고, 외부 온도의 변화에도 원하는 온도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폐열을 회수해 전기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이다.

LG이노텍은 소형 냉장고, 정수기 등 생활 가전에서 통신, 냉각설비 등 산업용 장비와 차량, 선박,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열전 반도체 기술 적용 분야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LG이노텍은 글로벌 제조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을 첫 글로벌 포럼 개최지로 선택했다. 그만큼 열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해왔다. 열전반도체 테크 포럼의 테마는 '열전 기술로 만들어가는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삶'이다.

이번포럼에서는 천리동 상하이세라믹 연구소 교수, 이규형 연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열전 반도체 기술 동향과 전망, 강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열전 반도체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열전 소재부터 소자, 모듈까지 독자 기술로 내재화한 열전 반도체 솔루션과 향후 R&D 로드맵을 공개한다. 열전 반도체 적용 제품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부스도 마련한다.

이번포럼은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전 반도체 포럼 홈페이지에서하면 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차 '고성능 N' 공식 세이프티 카로 공급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대회

현대자동차는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 2019년 시즌부터 공식 세이프티 카로 '고성능 N'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은 1988년부터 시작해 매 시즌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세계 12개국의 세계 유명 레이스 트랙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경주로 양산형 모터사이클 경주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꼽히는 대회다.

경주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 모터사이클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을 개조해 승부를 겨루는 대회로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며 매 경기 현장 관람객이 약 5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팬을 보유한 대회다.

현대차 고성능 N 차량으로 운영될 세이프티 카는 경주 시작 시 또는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레이스 트랙에 투



지난 7일 이탈리아 미사노 월드서킷에서 진행된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공식 세이프티 카 공급 협약식에서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커머셜 & 마케팅 디렉터 마르쿠사우리나(왼쪽)와 현대자동차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고성능 사업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입돼 경주 속도를 조절하는 등 경기 전반을 운영하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차량으로, 경주에 참가한 모터사이클의 선두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빠른 주행 성능과 함께 높은 내구성이 요구된다.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고성능사업 부장은 "현대자동차 고성능 N과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를 빨리 뛰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에 현대자동차 '고성능 N' 차량을 공식 세이프티 카로 공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식 세이프티 카 공급은 글로벌 시장의 타깃 고객들에게 현대자동차 고성능 N 차량의 성능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다임러트럭코리아, 상용차 전용 출고센터 건립 추진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아산시, 서광산업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벤츠 상용차 전용 출고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12일 다임러트럭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다임러트럭코리아와 아산시, 서광산업은 아산시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전용 출고 센터 건립을 위한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신개념의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전용 출고 센터가 충남 아산시에 대지 13만2000㎡에 총 면적 5만 9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500억 원 규모이며 센터는 2019년 3월



다임러트럭 코리아 조규상 대표이사(왼쪽부터), 아산시 오세현 아산시장, 서광산업(유) 나봉만 대표이사 등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다. /다임러트럭 코리아

오픈 예정이다. 신규 지역 인재 고용은 7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전자, 2019년형 김치냉장고 신제품 공개

LG전자가 고객이 선호하는 본질적 기능에 집중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선보일 2019년형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은 스탠드식 26종, 뚜껍식 14종 등 총 40종이다. 용량은 128리터(1)에서 836리터까지다.

LG전자는 모든 신제품에 디오스 김치냉장고만의 차별화된 신선기능인 'New 유산균김치+'를 기본 탑재했다. 이 기능은 김치의 감칠맛을 살려주는 유산균을 일반 보관모드에 비해 최대 57배까지 늘려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해준다. 고

객들은 '유산균 디스플레이'를 통해 김치의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했던 기능인데 올해는 가장 저렴한 뚜껍식 1도어 모델까지도 모두 적용했다.

스탠드식 모든 제품에 냉각-순환-유지력이 이어지는 '3단계 냉기케어시스템'을 적용했다. ▲냉기를 고르게 뿌려주는 4D 입체냉각 ▲6분마다 냉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편차 최소화하는 콜링케어 ▲별도 칸막이를 사용해 냉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냉기지킴가드 등이 냉장성능을



LG전자 모델들이 디오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향상시켰다. 또한 LG전자는 스탠드형 전 모델에 차별화된 정온기술을 구현하며 김치를 맛있게 숙성시킬 수 있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를 적용했다. /안병도 기자